

# ‘감투싸움’ 시의회... 이번엔 갈등 풀까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광주 시의회가 주류와 비주류로 갈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중앙당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의 불신의 골이 상당한 수준인 데다 이미 비주류에서 광주지부에 의장단 직무 정지 가져본 신정 등을 제기한 상황 이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민주당 배기운 사무총장은 “오는 17일 한화갑 대표가 광주시의회 파행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광주 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박광태 광주 시장과 유종필 광주시장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라며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날 회동이 이뤄진다면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배기운 사무총장은 또한 “우선 16일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종필 광주시장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파행 문제가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의원들의 상호 불신이 깊어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시장 측근도 “광주시의회 파행 사태에 마치 박광태 시장이 개입된 것처럼 알려져 곤혹스럽다”며 “이번 회동을 통해 광주시의회 파행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이

## 한화갑 대표 ‘주류·비주류’ 중재 나서 지역 정가선 ‘묘수 있겠나’ 회의적

박 시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현 상황에 서 한화갑 대표가 중재에 나서더라도 광주시의회의 파행 사태가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 측에서는 이미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한 만큼 다시 의장단 구성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비주류 측도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불법인 만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측의 강박원 의원은 “시의회 파행 사태로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 송구스럽다”며 “한화갑 대표가 일단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비주류 의원들과 대화에 나서겠지만 현 상황에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주류 측을 대표하는 손재홍 의원은 “현재 법원에 의장단 구성의 적법성 판단 여부를 요구한 상황인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 취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는 24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후 한화갑 대표가 중재하는 것이 수순일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일단 16일 중앙당 관계자를 광주에 내려 보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원만한 합의점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한화갑 대표의 최종 중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도저히 양측 간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한화갑 대표의 중재도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故 육영수 여사 32주기 추도식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 부부가 15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의 32주기 추도식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근영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분향하고 있다.

/연혜뉴스



## “뉴딜은 ‘기초공사’ ...계속 추진”

김근태 의장, 당안팎 비판적 시각 반박·개발기업 면담 시사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15일 ‘뉴딜론’에 대한 당 안팎의 회의적인 시각을 적극 반박하면서 흔들림없이 뉴딜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지난주 재계와의 순회간담회를 마치고 ‘노동계와의 뉴딜’ 입장을 앞두고 있는 김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여기서 물러서거나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이는 정부의 경제인 사면대상 축소와 출자총액제한제 논란을 계기로 당 안팎에서 ‘뉴딜 회의론’이 번져가고 있는데 대해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써 당 안팎의 우려를 돌파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우선 ‘뉴딜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회의론에 대해서 “뉴딜은 상당 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차근차근 반박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얘기가 원론적으로 반복됐지만 실천력이 부족했고, 사회적 대타협의 동력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경제인 사면대상 축소 등 뉴딜을 둘러싼 당정갈등 관측에 대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은연중 당의 입장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경제인 사면 축소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몸을 낮춘 뒤 “5.31 지방선거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집권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준엄한 질책을 받았다. 당에서는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당과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뉴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와의 순회간담회를 앞두고 “얘기를 경청하되 할 말은 하겠다”는 대화의 원칙을 제시했고, 개별 기업과의 면담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뉴딜 행보의 고삐를 바짝 죄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

관심·논란 왜?

## “여성 소장 탄생” “코드인사 포진”

노무현 대통령이 금명간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전 재판관이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전 재판관은 현재 사상 첫 여성 재판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2003년과 같이 이번에도 첫 여성·최연소 헌재소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논란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헌재소장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헌재소장은 헌법 해석을 통해 국가 중대사에 대한 미묘한 정점을 최종 판단하는 마지막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다.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 내정 의미 = 우선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내정된 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무리없이 통과하게 되면 1988년 9월 헌재 설립 이후 첫 여성 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참여정부 들어 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에 이어 헌재에서도 여성 수장이 나오는 것이다. 또 취임 당시 연령이 초대 조규광 헌재소장 62세, 2대 김용준 소장 56세, 3대 윤영철 소장 63세였기 때문에 55세의 전 재판관은 ‘최연소’라는 타이틀까지 추가로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왜 논란이 되나 =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 논란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정치권 및 법조계 내부의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는 측은 그가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11월 신형정 수도권건설 특별법 위원 헌법소원 사건에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정치권·법조계 시각차

여당·법원·개혁 적임자

야당·변협·중립성 훼손

재판관 재직중 임명

임기 놓고 의견 대립도

국민투표를 요하거나 헌법 개정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새 소장 임명을 정치적 의풍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경우 헌재는 권력

의 통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대법원에 예측될 우려가 있다”며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도 이날 “노 대통령의 사시동기들이 이미 검찰총장·대법관·헌재재판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분위기는 환영 쪽에 가깝다. 전 재판관이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도 찬성 의견을 보였다.

◇임기는 어떻게 되나 =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 재판관이 재직 중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잔여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으로 재직하는지,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장의 경우 헌법에 ‘6년의 임기’가 규정돼 있지만 헌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에는 헌재소장의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언급 없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재직 중인 재판관 중 헌재소장에 임명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2003년 8월 임명돼 3년 동안 재판관 직책을 수행해 온 전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낙점되면 임기가 잔여기간인 3년뿐인 것이 아니라 6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양립하는 한 요인이다.

/박지명기자 jkpark@kwangju.co.kr

## 의정연·참정연 親盧직계 다시 지지개

동면상태였던 열린우리당 내 친노 세력들이 지지개를 켜고 있다.

친노세력들은 5.31 지방선거 참패 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 전망과 함께 임지가 좁아지는 듯 했지만, 최근 “탈당은 하지 않겠다. 임기 후에도 당원

으로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일단 친노계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7월초 의정연 소속 의원들은 노대통령의 ‘정치적 동업자’ 안희정씨와

함께 유럽을 방문, 독일과 프랑스의 당원제도와 대선경선 방안 등을 관찰했다.

오는 27일 전국회의총회를 앞두고 있는 참정연은 우리당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회원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현역의원과 원외인사 2명을 공동 대표로 하는 내용의 참정연규약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G 기탄교육

▶기탄문제은행과 기탄만화교과서는 기탄교육 홈페이지(gitan.co.kr)에서 특별판매됩니다.

## 2학기 학교시험을 잡아라! 기탄문제은행 문제집

학교시험, 더 이상 빠져 나갈 문제가 없다! 어머니, 벌써부터 2학기 학교시험 걱정되지요? 학교 시험지와 똑같이 만든 기탄문제은행 문제집은 초등문제집 사상 최대 문제를 수록하여 그 어떤 문제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탄문제은행으로 학교시험 1등 만든 엄마들의 비법! 이제 기탄홈페이지에서 직접 만나 보세요.



- 대상 : 초등 1 ~ 4학년
- 구성 : 2학기 문제집 전 6권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미술·체육) 4권, 영어·과학·사회 2권
- 기탄 특별판매가 : 초등 1 ~ 2학년 18,000원, 초등 3 ~ 4학년 18,000원

## 교과서 선행학습을 잡아라! 기탄만화교과서

2학기 교과서, 만화로 재미있게 먼저 보세요! 새학기에도 수업시간에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죠? 기탄만화교과서로 2학기 교과서를 미리 만나 보세요. 한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핵심요점을 짚어주고, 서술형, 논술형 심층자료를 충분히 수록해 선행학습으로 그만이지요. 2학기 수업시간에 자신감 넘치는 우리 아이! 지금 기탄만화교과서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대상 : 초등 1 ~ 6학년
- 구성 : 각 학년별 4권 구성 (국어, 수학, 과학, 사회)
- 기탄 특별판매가 : 학년별 4권 1세트 13,000원

기탄수학 | 사교회수학 | 한글 | 새국어 | 영어 | 한자 | 중국어 | 급수한자발라기 기예

gitan.co.kr

기탄 인터넷회원이요! 무료

▶기탄학습지는 전국 유명서점과 대리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문의 : (02)486-1007